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MTA가 야간 지하철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고 발표

부분적 운영 재개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일찍 시작되며, 뉴욕시의 나이트라이프, 문화 센터 및 스포츠 시설의 점진적인 재개 지원

MTA는 지하철을 역대 가장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선된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이행 확진을 및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재개를 위한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코로나 지표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뉴욕시 지하철(New York City Subway)의 야간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2월 22일 월요일부터 심야 지하철 운행 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여 오전 2시에서 4시까지 운행 마감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하철의 운행 시간이 2시간 연장되며, MTA는 역대 가장 적극적인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5월 6일 이후, MTA는 오전 1시에서 5시까지 지하철 운영을 멈추고 지하철 객차 내 청소 및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 입원 환자 및 감염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신중하고 사려깊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경제의 여러 부문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및 바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문화 센터와 스포츠 시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는 직원과 고객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MTA는 지하철 서비스 심야 운영을 연장하여, 이들이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독 프로토콜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MTA의 Patrick J. Foye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의 양호한 진행, 낮은 감염율, 실내 식사 재개, 바와 레스토랑의 운영 시간 연장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지하철 심야 운영 재개는 주지사의 점진적 재개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을 2시간 중단함으로써 MTA가 가장 적극적인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계속 실시하여 깨끗한 지하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TA 뉴욕시 교통청 뉴욕시 교통국(MTA New York City Transit)의 Sarah Feinberg 대표 대행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뉴욕시 재개에 맞추어 뉴욕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청소 소독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Cuomo 주지사와 Zucker 커미셔너의 지침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연방 정부 및 질병 통제 센터의 지침 역시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MTA 운행 시간 연장은 뉴욕주의 확진을 및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재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2월 14일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레스토랑, 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 당구장 및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 SLA) 운영 면허가 필요한 매장의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월 23일부터 수용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주요 경기장과 스타디움에서 관중을 제한하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연구개발청(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은 최근 EPA는 Shawn Ryan 박사의 조언을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사는 EPA의 국토 안보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Program)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2월 9일 "표면이 바이러스 노출 경로가 되고 있"으며 "질병 예방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및 EPA 지침에 따라 다수의 사람이 접촉하는 표면에 대한 높은 빈도의 세척, 청소 및/소독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MTA를 비롯한 기타 대중교통 기관에 키오스크, 턴스타일, 벤치, 난간, 핸드레일, 쓰레기통, 문 손잡이, 공중전화,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카운터), 기둥, 핸드레일, 좌석, 벤치, 손잡이, 출구 버튼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질병 통제 센터도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달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의 승객은 코로나 청소 소독 때문에 지하철 탑승을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을에 실시한 MTA 조사 결과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0명의 승객 중 76%가 지하철 이용 시 청소 및 소독으로 인해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MTA는 2020년 5월 6일에 매일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지하철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동시에 심야 버스 서비스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MTA는 추가로 1,168회의 심야 버스 운행을 배치하여 심야 버스 서비스가 76% 증가되었습니다. 원래 운행하고 있던 235대 버스와 더불어 344개 버스를 추가 운영하여 운영 대수는 약 150% 증가했습니다. MTA는 자치구 내를 운행하는 익스프레스 노선 11개에 추가 정류소를 배정하고(브롱크스 5개 노선, 브루클린 및 퀸즈 각각 3개), 일반적으로 심야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13개의 신규 노선을 운영(브루클린 17개, 퀸즈 13개, 브롱크스와 맨해튼 각각 10개)하는 등 61개의 노선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37개 노선에 대하여 추가로 심야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에 실시한 승객 연구에 따르면, 오전 1~2시에는 승객 약 1,802명. 오전 2~3시에는 1,386명, 오전 3~4시에는 2,129명, 오전 4~5시에는 5,692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오전 1~2시와 오전 4~5시에 심야 지하철 이용객 대부분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